

도시주부의 대인적 지지, 생활긴장감 및 만족감

Interpersonal support, Tension in life changes & Life satisfaction in Urban Housewives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수 吳 京 姬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Oh, Ky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erpersonal support, tension in life changes & satisfaction. The selected sample is composed of 387 housewives in Chong Joo city. SAS pc program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F-test, percentage, mea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as follows: 1) At wedding & funeral ceremony, kin networks of her parents & parents-in law side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 on tension in life changes. And the number of social organization participated were a variable to hav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The age of couple, education of couple, duration of marriage, income, family life cycle, the number of children, pattern of family were variables to influence tension in life changes, but were not variables to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2) At usual or wedding & funeral ceremony, kin networks of her parents side were variables to influence on instrumental & companionship support. And the number of friends was a variable to influence on companionship & informational support. The number of neighbors was a variable to influence on instrumental, companionship & informational support. The number of social organization participated was a variable to influence on companionship & emotional support. The age of couple, education of couple, income, duration of marriage, family life cycle, number of children, family size,

family type were variables to influence on interpersonal support. 3)The relationship between tension and satisfaction in life changes was negative, and between instrumental support and satisfaction was negative also. But between companionship support and satisfaction was positive relationship and between tension of personal & social life and instrumental support was positive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ension of marriage life and companionship support was negative and between tension of family life and information support was negative relationships. The received companionship support was lower tension in life changes than not received it. But the received instrumental support was higher tension of personal & social life. The received companionship & informational support was higher satisfaction than not received them. But the received instrumental support was lower satisfaction than not received it. 4) Instrumental & companionship support, at usual kin network of her parents in law side, at wedding & funeral ceremony kin network of her parents side, were variables to influence on tension in life changes. Instrumental, companionship & informational support, at wedding & funeral ceremony kin network of her parents side, were variables to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목적

현대 사회는 고도한 과학기술 및 의학과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인간생활의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노령화 사회로 변모해 가는 추세는 물론 생활주기의 변화, 생활 기기의 자동화, 인구의 이동현상, 핵가족화 경향 등등 인간생활의 급속한 변화의 영향으로 가정내외에서 여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가정관리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관리전략을 세워 수행해야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을 영위해 가는 속에서 긴장감이 생기고 이는 인간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적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고 경제적 불황의 여건 속에서 더욱더 생활의 긴장감은 고조될 수 있으며 이것은 관리자의 심리적 부적응은 물론 가정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족간의 불협화음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적 차원에서나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역할로서의 대인적 지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대인관계 면에서 받는 지지는 생활변화 속에서 생긴 긴장감으로 인한 능력 발휘저하와 만족감의 감소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해주어 개인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안전감을 제공해 줌으로서 심리적인 적응을 잘하게 해준다. 또한 대인적 지지는 적응을 돕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예방과 중재노력을 강구함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된다. 즉 대인적 지지는 인간이 맺은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서(Cohen & Hoberman, 1983) 대인적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심리 및 생리적인 부정적 증상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박지원, 1985; 안귀여루, 1988; Catherine, S., James C.C. & Richard S.L. 1981 ; D.S. Dorenwend, 1984 ; Barbara, S. W., Sheryle W.A., Brenda M.D & Robert F.D. 1983). 또한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통한 자기가 속한 조직망으로의 통합과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과의 인격적, 정서적 관계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복지적 차원에서 가족과 이웃의 상호부조망을 개발 활용하며 국가와 가족은 복지부담을 분할하여 서로 교환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서병숙, 김유정 1993) 가정생활에서의 대인적

지지의 연구의 필요성이 한층 대두된다. 특히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 직장이동 및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긴장감 및 스트레스 팽대, 가족간의 갈등 및 불화, 가족의 분산 및 결속력 약화로 이혼 및 별거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가정의 정체성과 안정성이 점차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가족원을 이끌어주고 가족간의 결속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솔자적 능력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적 지지가 생활변화 속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여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 모색과 가족 결속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가정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387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경우로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인적지지: 인간의 대인적 결속에 의해 제공된 여러 가지 자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적 지지를 Sheldon C & Harry M.H.(1982)이 사용한 수단적 사교적 감정적 및 정보적 지지로 선정하였다.
- 2) 생활 긴장감: 생활변화 속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 즉 스트레스 원인으로 인한 적응 요구가 가족자원에 크게 부담을 줄 때 느끼는 감정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긴장감을 Olson등이 사용한 결혼생활 긴장감, 가족생활긴장감, 개인 및 사회생활 긴장감으로 선정하였다.
- 3) 생활만족감: 생활 속에서의 기대와 수행의 일치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생활 속에서

충족되어 지는 욕구, 기대, 소망의 정도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인적지지 및 관련연구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유기체로 생활체계의 한 부분이며 환경내의 다른 생활유기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또한 환경은 인간에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지지체계를 구성한다. 인간의 대인적 지지체계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변하고 대인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말한다. 대인적 지지는 사회적 자산 혹은 자원, 심리 사회적 자산, 보호하는 사회적 힘과 안전한 모형, 사회적인 관계망과 지지체계 그리고 그러한 상호 관련된 요인들 혹은 개념을 서술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의 정의를 전개시키는데는 사회적 대인적, 문화적인 요인 외에 환경적 물리적 요인이 포함된다(Bruhn, J.G. & B.U. Phillips 1984 152). 대인적 지지는 질적 및 양적인 양상 중에서 질적인 양상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 (Schafer, C., J.C. Coyne & R.S. Lazarus 1981). 대인적 지지는 친숙한 행동, 장소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나오며, 개인의 연령이나 생활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위기상황은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난다(Bruhn, J.G. & B.U. Phillips, 1984). 대인적 지지가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인적 지지(Interspersonal Support; Social Support)는 개인에게 안정된 대인관계를 통해 자아정체감, 안정감, 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 그리고 통제감을 제공하여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Jayakody, R., Chatter, L.M. & R.J. Taylor(1993)는 가족과 친인척간에 친밀 정도가 광범위한 친척의 지지에 대한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대인적 지지가 적응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는 입장은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즉, 완충가설 모델로서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는 대인적 지지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적응상에 별 차이가 없으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대인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하여 대인적지

지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잘 적응한다. 다음은 주 효과모델로서 스트레스 수준과는 상관없이 대인적 지지가 심리적 적응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스트레스와 지지의 상호작용 없이 대인적 지지의 통계적인 주효과만 나타난다. 대인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하느냐 혹은 주효과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 즉 치료에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안귀여루, 1988 5). 대인적 지지는 개인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개입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송종영, 1988 3 재인용)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Cohen, S. & H.M.Hoberman, 1983). 대인적 지지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구별되며 객관적지지(objective support) 보다는 개인에게 지각된 지지(perceived support)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지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각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지지로서 가치가 없을 것이다. Schaefer 등(1981)은 지각된 지지와 사회 관계망은 상관관이 있으며 특히 지각된 지지 즉 지지 인식도가 사회 관계망 보다 건강을 잘 예언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1970년 중반부터 대인적 지지와 여러 가지 심리 및 생리적인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Barbara S.W., Sheryle W.A., Brenda M.D. & Robert F.D.(1983)에 의하면 대인적 지지와 신체적 건강에 관한 문헌은 질병,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서비스 유용화, 의료, 회복 재생, 및 질병에 대한 적응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인적 지지는 지지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지지의 발달의 유용화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한가지 이상의 환경적 변인이라고 하였다. R.L. Leavy(1983)는 대인적 지지와 심리적 불안에 대한 재조명을 하면서 지지연결의 구조와 그것에서 생긴 관계의 질은 정신 건강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William P.S. & John P.(1989)는 대인적 지지와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 여가 시간 사용간의 관계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하였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지지와 기준변인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Marc P., Richard B. & Curt A.(1987)는 5년간에 걸쳐 건강관리 기관에서 40세 이상 437명의 성인들로부터 의료이용에 대한 것을 조사했는데 이용률은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적 지지의 처음 획득되어 나타나는 요인과 관련되고 생활스트레스와 지지 그리고 연령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이것은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에 미치는 지지의 중재효과에 대한 완충가설을 시사한다. 대인적 지지는 기능상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Bruhn, J.G. & B.U. Phillips, 1984 154). 즉 긍정적 기능으로는 ㉠ 귀속의 욕구충족을 돕는다. ㉡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 영향을 개선시킨다. ㉢ 희망 혹은 사기를 신장 및 회복시킨다. ㉣ 지지를 주고받는 능력은 새로운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능력을 함양시킨다. 부정적 기능으로는 여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인적 지지를 주고받는 개인의 능력은 사회적 지위, 연령, 성, 지역사회규모, 역할, 자아존중감, 그리고 인지양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Bruhn 등(1984)이 밝힌 개인의 능력과 대인적 지지사이에 관계를 보면 능력수준이 높고 경험된 지지수준이 높은 경우 지지를 주고받으며 능력수준이 높고 경험된 지지수준이 낮은 경우 지지를 주기만 한다. 그리고 능력수준이 낮고 경험된 지지수준이 높은 경우 지지를 받기만 하며 능력수준이 낮고 경험된 지지수준도 낮은 경우 지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지지를 하는 능력은 인성과 개인의 대응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대응양식은 지지를 받은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대인적 지지를 받은 경험의 여부는 지지를 주고받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지지의 적절한 정도는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지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 필요한 형태, 유용성과 접근 가능성. 이용여부는 생활주기에 따른 역할과 생활사건의 변화와 관련된다(Bruhn, I.G. & B.H. Phillips, 1984 157). Susan Gore(1984)는 스트레스 과정에서의 지지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객관적 스트레스(생활사건, 상황 혹은 변화)가 주관적인 스트레스(인지적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 두 관계에 대인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스트레스는 긴장발생(정신

건강 상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 관계에 대인적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인 스트레스와 대인적지지 그리고 긴장 발생(정신건강상태의 결과)과 대인적 지지간에는 호혜적인 관계가 있다. Pearlin과 Johnson(1977)은 가까이 친구가 있고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결속 없이 지내는 사람보다 우울증에 덜 걸린다고 하며 대인적 지지가 사회적 결속을 유도하고 이러한 것이 여성의 정신건강 상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Cohler와 Liberman(1981)도 중년기 여성들에 있어서 광범위한 사회적 결속이 심리적 불안과 연계된다고 하였고 Michell P. Farrell과 G.M.Barnes(1993)는 결속력이 클수록 가족구성원은 기능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능적인 가족은 결속력이 크고 더불어 가정내의 심리적 불안이 적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속의 개념은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지지영향과 대인적 지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지지(support)의 구성과 밀접히 관련된다(Barnes, Farrell & Chairns, 1986). 부언하면 결속력이 큰 가정일수록 가족 성원 개인이 기능적일수록 부모-자녀간에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 일치도가 높고 청소년 자녀의 행동적 성과도 좋아진다(Farrell & Barnes, 1993)는 것이다. J.G.Bruhn과 B.U.Phillips(1987)는 유아는 가족성원간의 결속과 부모의 결속에서 대인적 지지를 처음 경험하게되고 이 결속력은 개인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변한다. 그리고 유아기에 경험한 결속력은 새로운 지지를 발달시킬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강도가 고조되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평숙, 1984 63). C.Schaefer, J.C.Coyne과 R.S.Lazarus(1981)는 수단적 지지와 감정적 지지는 우울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이라 하였고 Cohen과 Hoberman(1983)은 물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수단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가 신체 질병을 일으킨다는 기제에서 개입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도한다는 기제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생활긴장 및 만족과 관련연구

생활긴장감이란 디스트레스 즉 극단적인 불행감 혹은 염려의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하며 큰 고통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금전, 음식 혹은 다른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 고통을 받는 상태 혹은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감정을 말한다(English Language Dictionary 411).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지표로는 우울, 불안, 정서적 통제 상실, 자아 존중감의 상실, 적대감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조희선, 1991; 김정자, 1985; Belle, 1982; Simons, R. Beamant, J. & Conger, .R.1993).

MaCubbin과 Patterson(1981)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불유쾌한 것으로 인식하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 하였고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Eustress) 혹은 부정적(Distress)반응 중 부정적 스트레스에 해당된다(이평숙, 1984). 부언하면 정신건강 상태는 긍정적 상태 즉 심리적 복지와 부정적 상태 즉 불안, 우울, 행동 및 정서적 통제 상실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구성되는데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문제상황이나 근심을 겪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 혹은 긴장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평형상태를 변경시키고 신체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신체적 또는 감정적 요소이다(Baughner & Martin, 1981 40). 인간은 생활과정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스트레스에 대처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Deborahbelle(1982)는 대인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심리적 복지감(emotional well-being)이 높고 도움을 받을수록, 생활에서 생긴 일을 통제하는데 숙련되었다고 자신이 느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자아 존중감의 자원은 우울증과 신체적인 증상으로 유인된 스트레스의 완충역할에서 중요한 것이고 자아 존중감을 다루는 일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며 동시에 스트레스 형태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생활 스트레스는 지지가 필요한데 일과 관련 된 것(수단적지지)과 사람과 관련 된 것(표현적지지)을 측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을 역할측면에서 두 가

지 이론으로 집약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역할 긴장 이론으로서 역할변화의 영향은 역할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다음은 역할 정체감 이론으로서 자아는 사회적 정체감으로 구성되고 정체감은 역할관계에서 생긴다. 또한 정체감은 개인에게 의미부여와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므로 역할이 많으면 안정감이 커지면서 심리적 복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의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로서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인데 대체로 인간의 자존감, 우울감 및 만족감 등의 세 측면에서 심리적 복지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경향이다(진미정, 옥선화, 1994).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상태 결과 변인으로서 부정적인 상태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인 긴장감과 긍정적인 상태 즉 심리적 복지감인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김미현, 류점숙, 신호식(1993) 연구에서는 건강문제, 가사노동문제 가정 경제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손상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인 부담과 긴장이 높을수록 심리적 손상도 커진다는 것이다. 진미정, 옥선화(199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에 따르는 긴장과 부담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 자존감,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긴장이 낮을 경우 우울 정도도 낮게 나타났고 자존감은 높으며 생활 만족도도 높았다. 고은숙과 김명자의 연구(1993)에서는 부부관계와 가사분담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원 인지가 높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디스트레스 즉, 신체적 부담감 혹은 긴장감은 높아지며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가사분담 문제의 스트레스원 인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높다. 최동숙(1989)은 부부간의 디스트레스 즉 긴장감 혹은 부담감을 느끼는 수준은 남편에 비해 부인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부인들은 전체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디스트레스 즉 긴장감 혹은 부담감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두경자(1993)는 자아존중감, 가정경제, 가족관계, 가사노동 및 건강문제 영역 등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낮은 주부일수록 생활만족감이 높다고 하였고, 결혼 만족도가 높고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낮아지며(권경희, 1985), 부정적 스트레스 즉 디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빠진다고 하였다(이평숙, 1984). 또한 박경숙(1993)은 가족 결속력이 클수록 여가활동 빈도 및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가족 결속력과 적응력이 모두 높을 경우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감은 높다고 하였다. 가족의 감정적 지지기능은 여가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가시간의 많음이 만족감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만족감과 관계가 있다(Orthner, 1975, 91). 남편이 평등적 역할태도를 가진 경우 부부간의 적응이 잘 되고 적응을 잘 할수록 결혼 만족도도 높다(김정원, 1987). 모자가족의 디스트레스 즉 긴장감 혹은 부담감을 느끼는 수준은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인지할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원이 많아질수록 디스트레스 수준은 높다(조희선, 1991). 또한, 부부간의 긴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의 긴장감이 클수록 디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낙관적인 견해는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배종열, 1985). 김영희(1996)는 도구적 지지 및 정보적 지지는 편모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서적 지지를 받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처벌적, 비판적 훈육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3. 대인적 지지와 생활긴장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변인

대인적 지지와 생활긴장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변인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령

부부간에 연령차이가 많을수록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배종열, 1985), 20대 여성이 40대보다 서비스 지지를 모에게 더 제공하며 40대 이상보다는 30대

가, 30대보다는 20대가, 모로부터 서비스적 지지를 더 받았다(고선주, 1990). 41세-50세 미만의 집단이 가장 높은 지지수준을 나타냈고 20세 미만이 가장 낮았다(박지원, 1985). 임정빈, 조미환의 연구(1995)에서는 30대주부가 50세 이상 주부보다 만족감이 더 높았고 고은숙, 김명자의 연구(1993)에서는 20대, 30대 주부보다 40대, 50대 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더 컸다. 김미현, 류점숙, 신호식의 연구(1993)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정이 35-39세인 가정보다 건강문제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고 30-34세인 주부의 가사노동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다.

2) 교육수준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주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 수준도 높았다(조희선, 1991).父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정서적, 정보적, 자존감 지지가 높았으며 母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정보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이경주, 신호식, 1997). 국졸 이하인 주부보다 중졸 이상인 주부가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다(임정빈, 조미환, 199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인적 지지가 높다(박지원, 1985). 또한 중졸 이하의 주부보다 대졸 이상의 주부가 만족감이 더 컸고(김화자, 윤종희, 1991) 대졸 이상의 부부가 전문대졸 이하의 부부보다 생활만족감이 더 컸다(양경숙, 하경란, 1997). 남편학력이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인 가정보다 고졸 및 대졸 이상인 가정이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고(김경숙, 이정우, 1993) 두경자(1993)의 연구도 비슷한 경향이다. 母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고정자, 김갑숙, 1996) 고졸주부가 중졸 이하 및 대졸 이상 주부보다 우울감이 더 컸다(진미정, 옥선화, 1994). 학력이 국졸인 주부가 주부역할 가정경제 가족관계 건강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가장 높았고 국졸주부가 고졸이나 대졸 이상 주부보다 심리적 손상이 컸다(김미현, 류점숙, 신호식, 1993).

3) 소득

소득과 경제적 긴장과는 역관계이며(배종렬, 1985),

소득이 높을수록 대인적 지지가 높다(박지원1985).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정보다 501만원 이상인 가정이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으며(임정빈, 조미환, 1995) 소득이 130만원 미만인 가정의 주부보다 130만원 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고(박경숙, 1993) 소득이 60만원 미만인 가정주부보다 180만원 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다(김화자, 윤종희, 1991).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정보다 301만원 이상인 가정의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고(양명숙, 하경란, 1997) 소득이 110만원 미만인 가정보다 110만원 이상인 가정의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다(김경숙, 이정우, 1993). 소득이 120만원 이하인 가정보다 211만원 이상인 가정의 생활만족감, 자존감이 더 높았다(진미정, 옥선화, 1994).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가정이 건강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았고 소득이 69만원 이하인 가정이 70만원 이상인 가정보다 가정경제와 가족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다. 소득이 50만원 미만의 가정이 150만원 이상인 가정보다 심리적 손상이 더 컸다(김미현, 류점숙, 신호식, 1993).

4) 직업

직업에 따라 서어비스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를 母女간에 주고받았는데 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생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서비스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를 모로부터 받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직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서비스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를 母에게 더 제공하였다(고선주, 1990). 직업이 전문직 및 행정직에 종사하는 경우 대인적지지가 높았고(박지원, 1985) 편모가 취업을 한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았다(김영희, 1996). Schafer, Coyne과 Lazarus의 연구(1981)에서는 실직한 중-노년기 사람은 수단적 지지를 적게 받으며 교사나 교육계통의 직업을 가진 부부보다 비교사나 비교육 계통의 직업을 가진 부부가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다(양경숙, 하경란, 1997). 남편이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가정이 사무직 및 서비스·생산 관리직에 종사하는 가정보다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다(김경숙, 이정우, 1993). 단순노

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사무 및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주부보다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주부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더 높았다(고은숙, 김명자, 1993). 남편이 생산직에 종사하는 가정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가정보다 주부역할, 가정경제, 가족관계, 건강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가장 높았고 심리적 손상도 가장 컸다(김미현, 류점숙, 신효식, 1993).

5) 가정생활주기

R.Jayakody, L.M.Chatters와 R.J.Taylor의 연구(1993)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모가 그 이상의 생활주기 단계에 있는 모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 및 감정적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보다 서비스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를 모로부터 받고 있었고 경제적 지지를 모에게 제공도 하였다(고선주, 1990).

6)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가 16-20년인 가정의 주부역할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고 16년 이상인 가정의 가족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및 손상도가 15년 이하인 가정보다 높으며 11-15년인 가정의 가사노동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한 21년 이상인 가정이 건강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수준이 가장 높았다(김미현, 류점숙, 신효식, 1993).

7) 자녀수

자녀수가 1-2명인 가정보다 4명 이상인 가정이 스트레스수준이 더 높았으나 심리적인 손상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김미현, 류점숙, 신효식, 1993).

8) 이웃, 친구, 사회참여기관수 및 접촉친척

이경희(1988)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친구 및 이웃 수는 1-5명이라 하였고 최현숙(1990)은 상례시 부조자들로 구성된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는 100-150명이라고 하였다. Milardo(1989)는 접촉하며 지내는 사람의 범위를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을 알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개인의 집합으로서 친족, 이웃, 친구, 직장동료, 자발적 단체 및 모임 회원, 종교집단회원, 공적, 전문적 지원자 등이라 하였다. 특히 접촉하는 구성이 친족 36.5%, 친구 45.4%, 친지 4.6%, 직장동료 6.7%, 이웃 4.4%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원효종과 옥선화(1993)는 도시 핵가족의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0명이며 그 구성은 친족 45.5%, 이웃 20.6%, 친구 21.8%, 직장동료 4.7%, 종교집단회원 4.1%, 모임단체회원 2.1%, 공적 전문지원자 1.4% 로서 주로 친족, 이웃, 친구의 범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친척은 필요시에 도와주는 의무와 애정 및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김주희, 오명희의 연구(1998)에서는 정서적, 경제적 및 친교적 관계에서 친척과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부부간의 역할수행 공유도가 높다고 하였다. 김경원의 연구(1989)에서는 시가와는 의례적인 교류가 많고 친정과는 정서적 교류가 많았다. 친정친척의 정서적 지지는 인생후반기 여성의 사기와 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킨다(Arling, G. 1976; McGhee, Y.L. 1985). Lopata(1978)는 친구가 사회활동에서 동료로서 기능 함으로써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친구관계에서는 물질적지지 즉 수단적 지지보다 정서적, 정보적지지가 더 많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성장한 중-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접촉하는 이웃수가 증가한다(이경희, 1988). 이웃관계에서는 사교적 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다음이 의례적 기능, 상호부조의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진다(최재석, 1983).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등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지의 근원이 된다. 사회단체 참여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이 높다(Hayes, M.P. & N.Stinnett, 1971). 신기영(1991)은 시가친척과 접촉을 통해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친정 친척과 접촉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친구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이웃은 사교적 지지를 그리고 사회단체 성원으로 참여를 통해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위기감이 낮았다고 하였다. 윤혜정(1993)은 청소년은 부모 형제 친구, 교사로부터 자신이 사랑 받고 존중되며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데 특히 형제의 평가적, 정보적 지지가 일상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허정원, 옥선화(1998)는 이혼모는 주로 형제, 자매, 친구, 부모로부터 비교적 많은 지지를 제공받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지지는 친구로부터 도구적 지지는 부모와 형제, 자매로부터, 정보적 지지는 친구와 형제 자매로부터, 그리고 사교적 지지는 자녀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이혼모의 생활만족감은 높고 부모의 도구적, 정보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았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는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4월21일-5월15일까지 400부의 설문지를 면담원을 통해 배포 및 수거하였다. 이중 기재미비인 설문지를 제외한 387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pc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백분율, F-test, t-test, Duncan's 사후검증, pearson's 상관계수, Cronbach - α , Mean,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1) 대인적 지지의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대인적 지지의 척도는 Sheldon Cohen & Harry M. Hoberman(1983)이 사용했던 ISEL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수단적지지 7문항, 사교적지지 9문항, 정보적지지 7문항, 감정적지지 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5점에 가까울수록 대인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수단적지지 0.69, 사교적지지 0.59, 정보적지지 0.71, 감정적지지 0.65였다.

2) 생활긴장감의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생활긴장감의 척도는 Olson 등이

사용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 Changes)척도를 참고로 하여 결혼생활긴장 10문항, 가족생활긴장 10문항, 개인 및 사회생활긴장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생활긴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결혼생활긴장 0.71, 가족생활긴장 0.73, 개인 및 사회생활긴장 0.70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3) 생활만족감의 척도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사용한 척도를 근거로 하여 수정, 보완한 후 5점 Likert 척도의 총 18문항을 재구성하였다. 5점에 가까울수록 생활만족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0.81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3.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대인적 지지와 생활긴장 및 만족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기혼 여성의 대인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 설1) 배경변인에 따라 대인적 지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기혼여성의 생활긴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 설2) 배경변인에 따라 생활긴장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3) 기혼여성의 생활만족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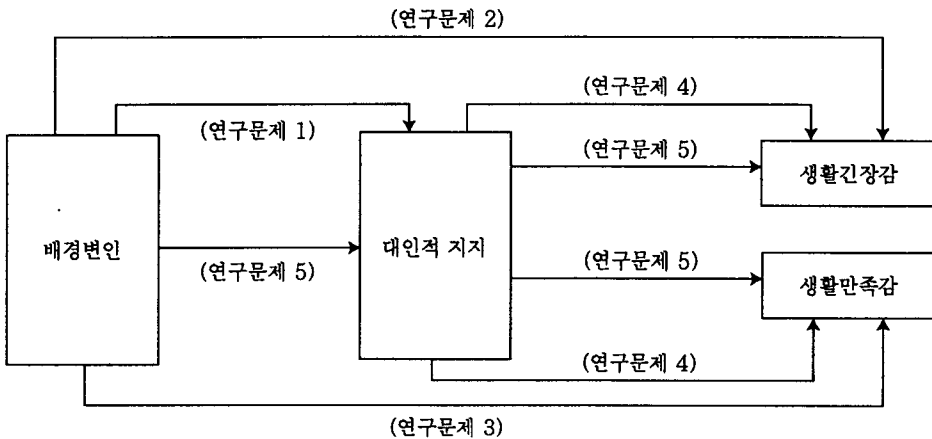
(가 설3) 배경변인에 따라 생활만족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4) 대인적 지지와 생활긴장 및 만족감은 관계가 있을 것인가?

〈표 1〉 각 변인의 신뢰도

변 인	cronbach- α	변 인	cronbach- α
결혼생활긴장	0.71	수단적지지	0.69
가족생활긴장	0.73	사교적지지	0.59
개인 및 사회생활긴장	0.70	정보적지지	0.71
생활만족감	0.81	감정적지지	0.65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가 설4) 대인적 지지와 생활긴장 및 만족감은 상관계수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5) 생활긴장 및 만족감에 미치는 제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30, 40대 주부가 67.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이 48.6%, 대졸 이상이 19.7%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남편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45.8%로 가장 많

았고 40대 29.0%, 50세 이상 25.2%를 나타냈고, 교육수준은 고졸 46.8%, 대졸 이상 34.6%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결혼지속년수는 9년 이하인 가정이 40.6%이었고 10-19년과 20-29년인 가정은 각 25.8%이었으며, 30년 이상은 7.8%이었다. 소득은 부부의 총수입을 합산한 것으로 101만원-199만원인 가정이 32.4%, 200만원-299만원인 가정이 30%이었고, 300만원 이상인 가정이 20.3%이었으며 100만원 이하인 가정도 17.0%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 관련직(32.3%)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판매직(18.1%)이었으며 생산직, 단순노무직(13.4%), 전문기술직(9.7%), 행정관리직(8.6%), 서비스직(7.8%)이었다. 자녀는 2명(53.8%)을 둔 가정이 과반수였고 1명(15.7%)과 3명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구 분	N (%)	변인	구 분	N (%)	변인	구 분	N (%)
주부 연령	29세이하	58(15.6)	주부 학력	국 졸	48(13.0)	남편 연령	39세이하	169(45.8)
	30-39세	146(39.2)		중 졸	69(18.6)		40-49세	107(29.0)
	40-49세	105(28.2)		고 졸	180(48.6)		50세이상	93(25.2)
	50세이상	63(16.9)		대졸이상	73(19.7)			
남편 교육	중졸이하	72(18.6)	결혼 지속 년수	9년이하	157(40.6)	소득	100만원이하	63(17.0)
	고 졸	181(46.8)		10-19년	100(25.8)		101-199만원	120(32.4)
	대졸이상	134(34.6)		20-29년	100(25.8)		200-299만원	112(30.3)
				30년이상	30(7.8)		300만원이상	75(20.3)
가정 생활 주기	I 단계	27(7.0)	남편 직업	무 직	6(1.7)	가족 수	2명이하	31(8.0)
	II 단계	110(28.7)		생산·단순노무	48(13.4)		3명	50(12.9)
	III 단계	63(16.4)		농·임·수산·축산	11(3.1)		4명	186(48.1)
	IV 단계	67(17.5)		서비스	28(7.8)		5명	75(19.4)
	V 단계	52(13.6)		판매	65(18.1)		6명이상	45(11.6)
	VI 단계	31(8.1)		행정관리	31(8.6)			
	VII 단계	33(8.6)		사무관련	116(32.3)			
		전문기술	35(9.7)					
		기타	19(5.3)					
접촉 친척 (c)	3촌이하	63(16.3)	접촉 친척 (a)	2촌이하	65(16.8)	접촉 친척 (b)	3촌이하	69(17.8)
	4-5촌	164(42.4)		3-4촌	244(63.0)		4-5촌	192(49.6)
	6-7촌	71(18.3)		5-6촌	42(10.9)		6-7촌	77(19.9)
	8촌이상	89(23.0)		7촌이상	36(9.3)		8촌이상	49(12.7)
접촉 친척 (d)	3촌이하	47(12.1)	친구 수	2명이하	58(15.0)	이웃 수	2명이하	45(11.6)
	4-5촌	103(26.6)		3명	70(18.1)		3명	69(17.8)
	6-7촌	89(23.0)		4명	60(15.5)		4명	73(18.9)
	8촌이상	148(38.2)		5명이상	199(51.4)		5명이상	200(51.7)
사회 참여 기관 수	1개	199(51.6)	가족 형태	핵가족	317(81.9)	자녀 수	없다	17(4.5)
	2개	112(29.0)		확대가족	70(18.1)		1명	60(15.7)
	3개이상	75(19.4)					2명	205(53.8)
						3명	66(17.3)	
						4명이상	33(8.7)	

* 접촉친척(A) :평상시 만나는 친정쪽
 접촉친척(B) :평상시 만나는 시가쪽
 접촉친척(C) :혼장례시 만나는 친척쪽
 접촉친척(D) :혼장례시 마나는 시가쪽

* 가정생활주기: 1단계:확립기
 2단계:미취학아동기
 3단계:초등교육기
 4단계:중고등교육기
 5단계:대학교육기
 6단계:회복기
 7단계:은퇴기

(17.3%)인 가정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4명 이상(8.7%)인 가정이었고 무자녀 가정도 5.4%이었다. 가족 수는 4명 이상(48.1%)인 가정이 제일 많았고 5명(19.4%), 3명(12.9%), 6명(11.6%)이었으며 2

명 이하인 가정도 8.0%이었다. 가정생활주기는 미취학아동가정(28.7%)이 가장 많았고, 중·고등교육기(17.5%), 초등교육기(16.4%), 대학교육기(13.6%), 확립기(7.0%), 회복기(8.1%), 은퇴기(8.6%)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81.9%)이 확대가족(18.1%)보다 많았으며 전업주부(62.9%)가 취업주부(37.1%)보다 더 많았다. 사회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 1개(51.6%)로 제일 많았고 2개(29.0%), 3개 이상(19.4%)으로 나타났다. 친구 수는 5명 이상(51.4%)이 제일 많았고, 3명(18.11%), 4명(15.5%), 2명 이하인 경우(15.0%)로 나타났다. 이웃 수는 5명 이상(51.7%)이 가장 많고 4명(18.9%), 3명(17.8%), 2명 이하(11.6%)로 나타났다. 평상시 만나는 친정 쪽 친척은 3-4촌(63.0%)이 지배적이고 혼장례 시 만나는 친정 쪽 친척은 4-5촌(42.4%)이 제일 많았다. 또한 평상시 만나는 시가 쪽 친척은 4-5촌(49.6%)이 제일 많았고 혼장례 시 만나는 시가 쪽 친척은 8촌 이상(38.2%)이었으며 다음이 4-5촌(26.6%)과 6-7촌(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긴장 및 만족

1) 일반적 경향

청주시 가정에 나타난 생활긴장감의 일반적 경향은 결혼생활(Mean=20.26)긴장감이 중간값 26에 못 미치므로 낮은 편이고, 가족생활(Mean=23.62)긴장감이 중간값 27.5를 못 미치므로 낮은 편이며, 사회생활(Mean=24.02)긴장감도 중간값 27.5를 못 미치므로 대체로 낮은 편이다. 반면, 생활만족감의 일반적 경향은 Mean=51.29로 중간값 48을 상회하므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긴장 및 만족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긴장 및 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해 F-test, t-test, Duncan's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부연령 : 주부연령이 50세 이상인 가정의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긴장감이 가장 높았고, 29세 이하의 주부의 가족생활 긴장감이 가장 낮았다. 이는 50세 이상인 주부는 중년기의 위기가 생길 수 있는 연령이고 노년기에 대비한 역할 재적용 및 직장생활에서 은퇴를 해야하는데 대한 새로운 적

〈표 3〉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 인	Mean	Min.	Max.	StD.
결혼생활긴장도	20.26	10.00	42.00	6.01
가족생활긴장도	23.62	11.00	44.00	6.73
사회생활긴장도	24.02	12.00	43.00	5.73
수단적지지	9.90	4.00	19.00	3.43
사교적지지	26.00	12.00	38.00	4.54
정보적지지	23.20	11.00	44.00	4.67
감정적지지	11.81	4.00	19.00	2.73
생활만족감	51.29	26.00	70.00	7.41

용을 위한 준비 등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 반면, 29세의 젊은 주부는 신혼기 내지는 가정 확립기에 있으므로 긴장감을 느끼기보다 서로에게 적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활이 영위될 것이므로 생활긴장감은 다른 연령층의 주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② 주부교육 : 국졸의 주부가 중졸 이상의 주부보다 생활긴장감이 더 높았다. 이는 국졸의 주부가 결혼생활 및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대응자원이 중졸 이상 주부보다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남편연령 : 남편연령이 50세 이상인 가정의 결혼생활과 개인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긴장도가 가장 높았다. 50세 이상의 기혼 남성은 중년기의 회환과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나 개인 및 가족생활에서 주부의 생활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④ 남편교육 : 남편학력이 중졸 이하인 가정이 고졸 이상인 가정보다 주부의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았다.

⑤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 20-29년인 가정이 결혼생활 긴장도가 가장 높았고, 결혼지속년수 30년 이상인 가정이 가족생활 긴장도가 가장 높은 반면 9년 이하인 가정이 가족생활 긴장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전업주부의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심리

적 디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밝힌 권경희의 연구(1985)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⑥ 소득 :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정이 101만원 이상인 가정보다 가족생활 긴장도가 더 높았다. 이는 경제적 자원인 소득의 부족이 가족생활의 긴장감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배종열(1985)의 연구와 소득이 많을수록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밝힌 권경희의 연구(1985)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⑦ 가정생활주기 : 결혼생활 긴장감은 확립기에 가장 낮고 회복기 및 은퇴기에 가장 높았다. 가족생활 긴장감은 확립기 및 미취학 아동기에 가장 낮고 은퇴기에 가장 높았다. 은퇴기는 역할상실과 소득감소로 생활의 재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⑧ 자녀수 : 무자녀 가정이 결혼생활 및 가족생활 긴장도가 가장 낮고 반면에 자녀수 3-4명 이상인 가정이 결혼생활 및 가족생활 긴장도가 가장 높았다. 자녀는 주부가 관리해야 할 인적자원이며 부모로서 역할 수행상에 부담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권경희의 연구(1985) 결과와 상반된다.

⑨ 가족형태 : 확대가족의 가정이 핵가족의 가정보다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의 긴장감이 더 높았다. 이는 확대가족은 핵가족보다 가족 수나 친척관계의 범위가 넓으므로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의 긴장감이 확대가족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⑩ 이웃, 친구, 사회참여 기관수 및 접촉친척: 결혼생활, 가족생활 그리고 개인 및 사회생활의 긴장감이 혼장례 시, 친정 쪽 3촌 이하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이 6촌 이상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혼장례 시 시가 쪽 5촌 이하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이 8촌 이상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보다 결혼생활 긴장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접촉하는 친척의 범위가 넓으면 긴장감도 감소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사회참여 기관수에 따라 생활만족감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참여기관이 3개 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2개 이하인 주부보다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다. 이는 주부가 사회참여를 많이 하면 생활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대인적지지

1) 일반적 경향

대인적지지 중 수단적지지(Mean=9.90)는 중간값 11.5보다 낮게 나타나 물질적 도움이나 금전적 도움 등을 적게 받는 경향이고, 사교적지지(Mean=26.0)는 중간값 25를 약간 상회하므로 여가 및 휴식을 함께 한다거나 그룹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교적 지지를 대체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적 지지(Mean=23.20)는 중간값 27.5에 못 미치므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던가 충고 및 정보를 제공하는 도움을 주는 정보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감정적 지지(Mean=11.81)는 중간값 11.5를 약간 상회하므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걱정을 누군가 해주고 있다는 느낌 등 친밀감, 의존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감정적 지지는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별 대인적지지

배경 변인에 따른 대인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F-test, t-test, Duncan's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부연령 : 주부의 연령에 따라 수단적, 사교적, 정보적 및 감정적 지지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29세 이하의 주부가 40세 이상의 주부보다 수단적 지지를, 29세 이하의 주부가 50세 이상의 주부보다 사교적 지지를, 39세 이하의 주부가 40세 이상의 주부보다 정보적 지지를, 그리고 49세 이하의 주부가 50세 이상의 주부보다 감정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② 주부학력 : 주부의 학력에 따라 사교적, 정보적 및 감정적 지지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대졸 이상의 주부가 중졸이나 국졸의 주부보다 사교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고 국졸의 주부보다 중졸 이상의

주부가 정보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그리고 대졸 이상의 주부가 국졸의 주부보다 감정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③ 남편 연령 : 남편의 연령에 따라 수단적 및 정보적 지지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남편이 39세 이하인 가정의 주부가 40세 이상인 가정보다 수단적 및 정보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④ 남편학력 : 남편의 학력에 따라 정보적 지지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편학력이 고졸 이상인 가정이 중졸 이하인 가정의 주부보다 정보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⑤ 결혼지속년수 :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수단적 및 정보적 지지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결혼지속년수 9년 이하인 주부가 10년 이상인 주부보다 수단적 및 정보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⑥ 소득 : 소득에 따라 사교적, 정보적 및 감정적 지지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100만원 이하인 주부보다 101만원 이상인 가정의 주부가 정보적 및 감정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⑦ 가정생활주기 :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수단적 및 정보적 지지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확립기 가정의 주부가 중·고등 및 대학 교육기, 은퇴기 가정의 주부보다 수단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미취학 아동기 가정의 주부가 중고등 교육기 이상인 가정의 주부보다 정보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⑧ 자녀 수 : 자녀수에 따라 수단적, 사교적, 정보적 및 감정적 지지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무자녀 가정의 주부가 3명의 자녀를 둔 가정 주부보다 수단적 지지를, 무자녀 가정의 주부가 자녀 1명 이상 둔 가정의 주부보다 사교적 지지를, 무자녀 가정의 주부가 자녀 4명 이상을 둔 가정의 주부보다 정보적 및 감정적 지지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 가족 수 : 가족 수에 따라 수단적지지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 수 2명 이하인 가정의 주부가 6명 이상인 가정의 주부보다 수단적 지지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⑩ 가족형태 : 가족형태에 따라 사교적 및 감정적

지지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확대가족인 가정의 주부가 핵가족인 가정의 주부보다 사교적 및 감정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⑪ 이웃, 친구, 사회기관참여수 및 접촉친척: 청주시 주부의 평상시 친척 쪽 7촌 이상의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이 2촌 이하의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보다 물질적 및 경제적 도움 등 수단적 지지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 장례 시에는 8촌 이상의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이 7촌 이하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보다 사교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반면, 평상시 및 혼장례 시 접촉하는 시가친척 접촉에 따른 대인적 지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수가 2명 이하인 주부보다 3명 이상인 주부가 사교적 지지를, 그리고 친구수가 2명 이하인 주부보다 4명 이상인 주부가 정보적 지지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수가 4명인 주부가 3명 이하인 주부보다 수단적 지지를, 이웃수가 2명 이하인 주부보다 3명 이상인 주부가 사교적 지지를, 그리고 이웃수가 5명 이상인 주부가 2명 이하인 주부보다 정보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3개 이상의 사회기관에 참여하는 주부가 2개나 1개의 사회기관에 참여하는 주부보다 사교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고, 3개 이상의 사회기관에 참여하는 주부가 2개 이하의 사회기관에 참여하는 주부보다 감정적 지지를 더 받고 있었다.

4. 생활긴장 및 만족감과 대인적 지지의 관계

생활긴장 및 만족과 대인적 지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5〉 참조), 생활긴장과 생활만족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적지지 중 수단적 지지는 생활만족감에 부적 상관관계가, 사교적 지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생활긴장감중 개인 및 사회생활 긴장감은 수단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결혼생활 긴장감은 사교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족생활 긴장감은 정보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지지유무별 생활긴장감과 만족감을 알아

〈표 5〉 변인의 자기상관관계

	주부 교육	주부 연령	남편 연령	남편 교육	결혼 년수	소득	생활 주기	자녀 수	가족 수	접촉 전적 (a)	접촉 전적 (b)	접촉 전적 (c)	접촉 전적 (d)	이웃 수	친구 수	만족감	결혼 생활 긴장	가족 생활 긴장	사회 생활 긴장	수단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감정적 지지	전체 긴장감	전체 지지	사회 참여 기관 수
주부 교육		*** -0.56	*** -0.57	*** 0.73	*** -0.60	*** 0.31	*** -0.61	*** -0.43	*** -0.26	0.00	-0.05	0.07	0.00	* -0.12	** 0.16	0.03	** -0.16	*** -0.24	-0.07	0.05	*** 0.20	*** 0.23	** 0.15	** -0.16	*** 0.26	0.03
주부 연령			*** 0.84	*** -0.36	*** 0.80	*** 0.01	*** 0.86	*** 0.60	*** 0.30	0.00	0.06	0.00	0.06	** 0.15	-0.02	-0.01	*** 0.18	*** 0.19	0.07	** -0.15	* -0.13	*** -0.24	* -0.10	** 0.14	*** -0.24	0.17
남편 연령				*** -0.40	*** 0.84	*** 0.00	*** 0.86	*** 0.51	*** 0.24	-0.05	0.06	-0.03	0.09	** 0.14	-0.03	0.00	*** 0.21	*** 0.19	0.07	* -0.11	-0.08	*** -0.18	-0.06	** 0.15	** -0.17	0.17
남편 교육					*** -0.38	*** 0.25	*** -0.44	*** -0.32	*** -0.21	0.03	0.03	0.08	0.06	** -0.10	0.16	0.09	** -0.15	*** -0.21	-0.06	0.04	*** 0.05	* 0.11	0.08	** -0.15	0.10	0.01
결혼 년수						*** 0.01	*** 0.86	*** 0.55	*** 0.28	-0.03	0.00	-0.03	0.06	** 0.13	-0.05	-0.00	*** 0.17	*** 0.27	0.10	* -0.12	-0.10	*** -0.24	-0.06	*** 0.20	*** -0.20	0.21
소득							-0.05	-0.02	0.08	-0.06	0.01	0.05	0.04	-0.04	0.05	0.08	-0.01	** -0.15	-0.00	-0.08	** 0.15	0.06	*** 0.18	-0.09	* 0.14	0.13
생활 주기								*** 0.65	*** 0.32	-0.00	0.06	0.03	** 0.14	*** 0.17	-0.00	-0.00	*** 0.19	*** 0.20	0.02	* -0.11	-0.08	*** -0.21	-0.09	* 0.14	*** -0.20	0.14
자녀 수									*** 0.61	-0.00	0.04	-0.02	* 0.10	*** 0.21	-0.00	-0.07	*** 0.19	*** 0.21	0.01	*** -0.18	-0.15	-0.17	-0.15	0.12	-0.23	0.12
가족 수										0.04	0.05	0.01	0.09	*** 0.20	-0.00	0.05	0.07	0.05	-0.05	*** -0.22	-0.05	-0.03	-0.02	-0.00	-0.10	0.09
접촉 전적 (a)											0.55	0.51	*** 0.29	** 0.14	** 0.16	0.06	-0.09	-0.06	-0.05	0.07	0.06	* 0.11	0.03	-0.06	** 0.17	0.02
접촉 전적 (b)												0.38	*** 0.52	*** 0.20	* 0.11	* 0.11	* -0.12	* -0.13	* -0.11	0.04	0.07	0.01	0.03	** -0.15	0.08	0.05
접촉 전적 (c)													*** 0.61	** 0.14	*** 0.17	* 0.12	*** -0.18	** -0.15	** 0.13	0.10	** 0.13	0.09	0.05	*** -0.18	** 0.16	0.07
접촉 전적 (d)														** 0.16	* 0.11	* 0.11	*** -0.17	** -0.13	* -0.10	0.03	0.09	0.05	-0.03	** -0.17	0.08	0.02
이웃 수														*** 0.33	0.00		-0.08	0.02	-0.09	* 0.11	*** 0.19	** 0.13	0.01	-0.07	*** 0.20	* 0.13
친구 수																* 0.10	-0.09	* -0.12	-0.07	-0.00	*** 0.28	*** 0.20	0.07	* -0.10	*** 0.23	*** 0.13
만족감																	*** -0.33	*** -0.32	*** -0.35	*** -0.24	*** 0.23	-0.02	0.20	*** -0.42	*** 0.07	0.16
결혼 생활 긴장																		*** 0.54	*** 0.49	-0.00	** -0.17	0.00	-0.02	*** 0.81	-0.04	0.05
가족 생활 긴장																			*** 0.56	0.08	-0.08	* -0.10	-0.00	*** 0.86	-0.03	0.07
사회 생활 긴장																				* 0.13	-0.10	-0.01	0.00	*** 0.81	0.04	0.09
수단적 지지																					0.06	0.10	0.00	0.10	*** 0.45	0.02
사교적 지지																						*** 0.34	*** 0.31	* -0.12	*** 0.74	*** 0.33
정보적 지지																							*** 0.18	-0.02	*** 0.73	0.03
감정적 지지																								-0.00	*** 0.53	*** 0.19
전체 긴장감																									0.01	0.08
전체 지지																										*** 0.26
사회 참여 기관 수																										1.00

* P<.05 ** P<.01 *** P<.001

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대인관계 지지중 사교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생활긴장감(결혼생활, 가족생활, 개인 및 사회생활)이 더 낮았다. 반면, 수단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개인 및 사회생활 긴장감이 더 높았다. 대인관계 지지중 사교적 지지와 감정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보다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고 반면 수단적 지지는 안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생활만족감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는 사교적지지 즉, 친구, 이웃, 친척과의 접촉을 하여 상호작용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생활에서 생기는 긴장감과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볼 때 완충효과 가설을 시사한다고 보며 반면, 수단적 지지는 물질적, 금전적 도움 등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긴장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스트레스와 지지는 상호작용 없이 지지가 적응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통계적 주효과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주효과 모델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해석된다. 수단적 지지는 받는 사람이 부담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나 상황의 적응은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수단적 지지는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이 긴장감과 부담감을 덜 느끼게 하면서 상황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5. 생활긴장 및 만족감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

생활긴장 및 만족감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 긴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단적지지($\beta = 0.14$), 사교적지지($\beta = -0.14$), 평상시 시가 쪽 접촉친척($\beta = -0.17$), 혼장례 시 친정쪽 접촉친척($\beta = -0.13$)이었다. 이들 변인이 생활 긴장감을 11% 설명하고 있다. 즉, 수단적 지지를 받을수록, 사교적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평상시 시가 쪽 접촉하는 친척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혼장례 시 친정 쪽 접촉하는 친척이 적을수록 생활 긴장감은 높아진다. 주부연령, 주부학력, 남편학력, 이웃수, 가족수, 친구수, 사회참여 기관수는 수단적 지지와 사교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긴장감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었다. 생활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단적지지($\beta = -0.25$), 사교적지지($\beta = 0.22$), 정보적지지($\beta = -0.13$), 혼장례 시 친정쪽 접촉친척($\beta = 0.12$)이었다. 이들 변인이 생활만족감을 18% 설명하고 있다. 즉, 수단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사교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혼장례 시 친정 쪽 접촉하는 친척이 많을수록 생활만족감은 높아진다. 주부연령, 주

〈표 6〉 대인적 지지유무별 생활 긴장 및 만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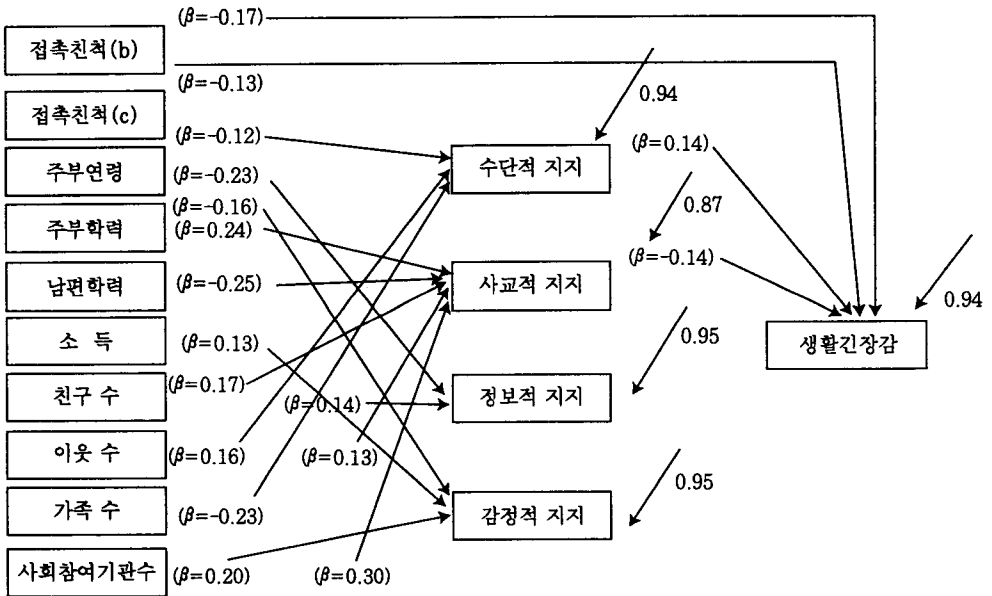
종속변인	결혼생활긴장감								가족생활긴장감							
	수단적지지		사교적지지		정보적지지		감정적지지		수단적지지		사교적지지		정보적지지		감정적지지	
독립변인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평균	19.40	20.47	21.11	19.72	20.34	21.04	20.43	19.82	22.53	24.04	24.44	22.97	23.81	23.56	23.45	23.32
df	106.5		278.2		52.4		278.3		117.4		309.6		51.7		275.8	
t-값	-1.28		2.02*		-0.70		0.84		-1.67		1.96*		0.22		0.15	
종속변인	개인 및 사회생활긴장감								생활만족감							
	수단적지지		사교적지지		정보적지지		감정적지지		수단적지지		사교적지지		정보적지지		감정적지지	
독립변인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평균	23.07	24.05	24.85	23.55	24.12	24.68	23.79	24.36	53.50	50.32	49.56	52.72	51.47	49.34	49.95	52.82
df	130.7		294.7		51.7		293.2		99.0		288.7		48.6		277.3	
t-값	-1.99*		2.00*		-0.58		-0.85		3.15**		-3.74***		1.73		-3.31**	

* P<.05 ** P<.01 *** P<.001

〈표 7〉 생활긴장감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value	F-value	R ²	adj R ²	VIF	DW	상수
생활긴장감	수단적지지	0.64	0.14*	5.30***	0.11	0.09	1.02	1.19	78.08
	사교적지지	-0.48	-0.14*						
	접촉친척(B)	-2.87	-0.17**						
	접촉친척(C)	-2.06	-0.13*						
수단적지지	주부연령	-0.46	-0.12*	8.33***	0.10	0.09	1.09	2.13	10.95
	이웃수	0.52	0.16**						
	가족수	-0.79	-0.23***						
사교적지지	주부학력	1.25	0.24**	12.69***	0.23	0.22	2.90	1.89	19.82
	남편학력	-1.72	-0.25***						
	이웃수	0.54	0.13*						
	친구수	0.67	0.17**						
정보적지지	주부연령	-1.19	-0.23***	7.46***	0.09	0.08	1.03	1.84	21.81
	친구수	0.57	0.14*						
감정적지지	주부연령	-0.49	-0.16**	7.10***	0.09	0.07	1.03	1.87	10.21
	소득	0.38	0.13*						
	사회참여기관수	0.70	0.20***				1.03		

* P < .05 ** P < .01 *** P < .001 (B) 접촉친척(B):평상시 시가쪽
 접촉친척(C):혼장례시 친정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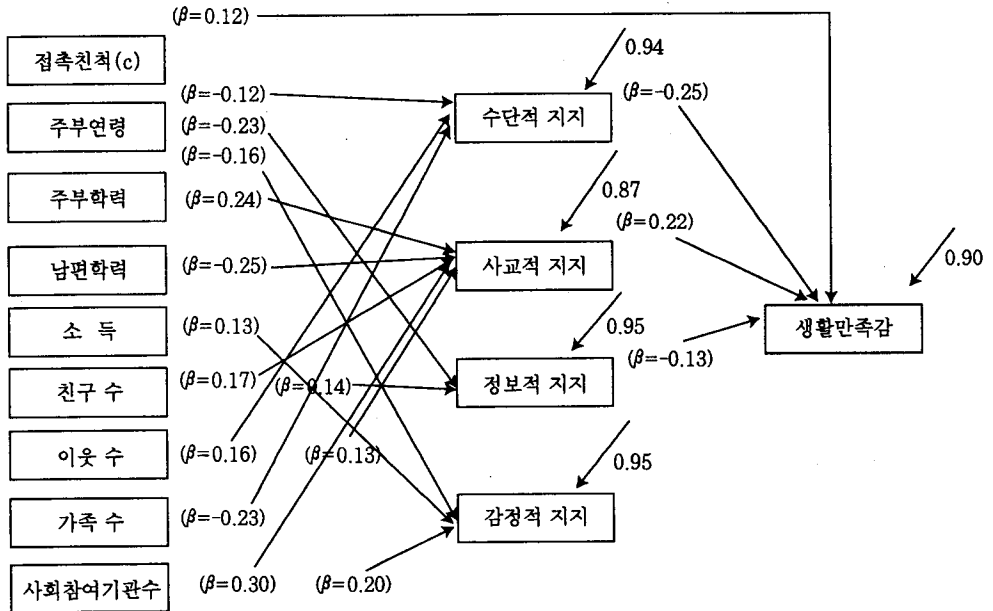


〈그림 2〉 생활긴장감에 대한 경로분석

〈표 8〉 생활만족감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value	F-value	R ²	Adj R ²	VIF	DW	상수
생활만족감	수단적지지	-0.54	-0.25***	8.48***	0.18	0.16	1.05	1.87	46.53
	사교적지지	0.37	0.22***				1.21		
	정보적지지	-0.22	-0.13*				1.14		
	접촉친척(C)	0.91	0.12*				1.19		
수단적지지	주부연령	-0.46	-0.12*	8.33***	0.10	0.09	1.09	2.13	10.95
	이웃수	0.52	0.16**				1.07		
	가족수	-0.79	-0.23***				1.09		
사교적지지	주부학력	1.25	0.24**	12.69***	0.23	0.22	2.90	1.89	19.82
	남편학력	-1.72	-0.25***				2.10		
	이웃수	0.54	0.13*				1.21		
	친구수	0.67	0.17**				1.19		
	사회참여기관수	1.69	0.30***				1.08		
정보적지지	주부연령	-1.19	-0.23***	7.46***	0.09	0.08	1.03	1.84	21.81
	친구수	0.57	0.14*				1.14		
감정적지지	주부연령	-0.49	-0.16**	7.10***	0.09	0.07	1.03	1.87	10.21
	소득	0.38	0.13*				1.01		
	사회참여기관수	0.70	0.20***				1.03		

*P < .05 **P < .01 ***P < .001 C: 관계망(C): 혼장레시 친정쪽 접촉친척



〈그림 3〉 생활 만족감에 대한 경로분석

〈표 9〉 생활긴장감에 대한 인과분석

독립 변인	총체적 관계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주부 연령	0.14	-	-0.01	-0.01	0.15
주부 학력	-0.16	-	-0.03	-0.03	-0.13
남편 학력	-0.15	-	0.03	0.03	-0.18
이웃수	-0.07	-	-0.01	-0.01	-0.06
친구수	-0.10	-	-0.02	-0.02	-0.08
사회참여 기관수	-0.08	-	-0.04	-0.04	-0.04
접촉친척(B)	-0.15	-0.17	-	-0.17	0.02
접촉친척(C)	-0.18	-0.13	-	-0.13	-0.05
수단적 지지	0.10	0.14	-	0.14	-0.04
사교적 지지	-0.12	-0.14	-	-0.14	0.02
가족수	-0.00	-	-0.03	-0.03	0.03

〈표 10〉 생활만족감에 대한 인과분석

독립 변인	총체적 관계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주부 연령	-0.01	-	0.05	0.05	-0.06
주부 학력	0.03	-	0.02	0.02	0.01
남편 학력	0.09	-	-0.05	-0.05	0.14
이웃수	0.00	-	-0.02	-0.02	0.02
친구수	0.10	-	0.03	0.03	0.07
사회참여 기관수	0.16	-	0.06	0.06	0.10
정보적 지지	-0.02	-0.13	-	-0.13	0.11
접촉친척(C)	0.12	0.12	-	0.12	0.00
수단적 지지	-0.24	-0.25	-	-0.25	0.01
사교적 지지	0.23	0.22	-	0.22	0.01
가족수	0.05	-	0.05	0.05	0.00

부학력, 남편학력, 이웃수, 가족수, 친구수, 사회참여 기관수는 수단적지지, 사교적지지, 정보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만족감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생활긴장 및 만족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인과적 및 비인과적 효과로 분해하여 총 효과를 산출하였다.(〈표 9〉, 〈표 10〉 참조) 즉, 생활긴장감에는 주부연령 -0.01, 주부학력 -0.03, 남편학력 0.03, 이웃수 -0.01, 친구수 -0.02, 사회참여기관수 -0.04, 가족수 -0.03의 간접효과가 있었고, 평상시

시가쪽 접촉친척 -0.17, 혼장례 시 친정쪽 접촉친척 -0.13, 수단적지지 0.14, 사교적지지 -0.14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생활만족감에는 주부연령 0.05, 주부학력 0.02, 남편학력 -0.05, 이웃수 -0.02, 친구수 0.03, 가족수 0.05, 사회참여 기관수 0.06의 간접효과가 있었고 혼장례 시 친정쪽 접촉친척 0.12, 수단적지지 -0.25, 사교적지지 0.22, 정보적지지 -0.13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생활의 변화에 따른 긴장감과 만족감 그리고 대인적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생활, 가족생활, 개인 및 사회생활의 긴장감은 혼장례 시 친정 쪽 3촌 이하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이 6촌 이상의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보다 더 높았다. 또한 혼장례 시 시가 쪽 5촌 이하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이 8촌 이상 친척과 접촉하는 가정보다 결혼생활 긴장감이 더 높았다. 사회참여 기관수가 3개 이상인 주부가 2개 이하인 주부보다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부부연령, 부부학력, 결혼지속년수, 소득,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에 따라 생활긴장감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생활만족감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평상시 및 혼장례 시 친정 쪽 접촉 친척에 따라 수단적 및 사교적 지지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친구 수에 따라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이웃 수에 따라 수단적,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사회참여 기관수에 따라서는 사교적 지지와 감정적 지지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부부연령, 부부학력, 소득, 결혼지속년수,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수, 가족형태에 따라 대인적 지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3) 생활긴장 및 만족감과 대인적 지지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생활긴장감과 만족감간에는 부적상관이, 수단적 지지와 생활만족감간에는 부적상관이, 그리고 사교적 지지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개인 및 사회생활 긴장감과 수단적 지지간에는 정적상관이, 결혼생활 긴장감과 사교적 지지간에는 부적상관이, 그리고 가족생활 긴장과 정보적 지지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대인관계 지지중 사교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생활긴장감(결혼생활, 가족생활, 개인 및 사회생활)이 더 낮았다. 반면, 수단적 지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 개인 및 사회생활 긴장감이 더 높다. 대인관계지지중 사교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보다 생활만족

감이 더 높았고 반면 수단적 지지는 안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생활만족감이 더 높았다.

4) 생활긴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단적 지지, 사교적지지, 평상시 시가쪽, 혼장례 시 친정쪽 접촉친척 이었다. 생활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단적지지, 사교적지지, 정보적지지, 혼장례시 친정 쪽 접촉친척 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할 수 있다.

접촉하는 친척의 범위가 넓고, 접촉하는 친구와 이웃이 많으며 사회참여를 많이 하면 대인적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접촉하는 친척범위가 넓으면 생활 긴장감이 감소되고 사회참여를 많이 하면 생활만족감도 높아진다. 특히 사교적 지지는 생활긴장감을 감소시키고, 사교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킨다. 반면, 수단적 지지를 받으면 생활긴장감이 감소되지 않고 생활만족감이 감소되는 경향이다. 즉 도시주부는 친구나 친척 이웃과 자주 접촉하고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갖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생기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인 긴장감과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인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부언하면, 대인관계 및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능력 함양, 여가활동과 자기개발, 각 직장, 문화센터, 여성단체, 대중매체 등에서 부부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건전한 놀이 문화를 통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의 분위기 형성과 제도적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즉 여성은 자신을 표현하고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여성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삶과 밀착된 문제와 이미지를 문화매체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 표현과 다양한 표현 방법은 스스로 인식의 변화를 이루고 인간 상호간에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김양희, 1995). 현재 이러한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성개발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반여성 프로

그림과 실무자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서울시 상담소의 가족대화의 밤, 카톨릭 서울대 교구의 Marriage Encounter 과정, 성장 상담 연구소의 인간관계 교육 과정, 한국 심리 상담 연구소의 부부대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각 지역마다 실행되고 있지 않아 각 지역 단위의 실제적 적용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변화순, 1997,87). 한편, 물질적,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는 수단적 지지는 상호간에 긴장감과 부담감을 유도할 수 있으나 상황에 대한 적응은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수단적 지지는 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활만족감을 감소시키지 않고 긴장감을 덜 느끼게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선주(1990). 기혼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정모친과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고은숙·김명자(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 원 내의 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 고정자·김갑숙(1996). 가족 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인지 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권경희(1985). 한국 도시 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김경원(1989). 친족 관계망 유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김경숙·이정우(1993).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과 가정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29-46.
- 김미현·류점숙·신효식(1993). 주부의 가정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111-126.
- 김양희(1995). 여성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 *여성연구* 47 여름호. 한국여성개발원, 65-86.
- 두경자(1993). 주부의 스트레스인지 수준 및 대처 행동에 따른 가정 관리 행동 및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18-234.
-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박지원(1989).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 배종렬(1985).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 방안. 경북대 석사논문.
- 변화순(1997).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여성연구* 여름호. 한국여성개발원, 75-95.
-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에 대한 사회적지지 완충효과의 성차. 고려대 석사논문.
- 양명숙·하경란(1997). 모(시, 친정)와의 동거 여부가 취업 주부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01-313.
- 원효중·옥선화(1993). 가족의 사회 관계망 구조와 관련 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76-190.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 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 석사논문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 농촌 가정의 의사 소통, 재무 관리 행동. 가정 생활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대 박사논문.
-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 진미정·옥선화(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1-13.
-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65-179.
- Arling,G.(1976). The Elderly Widow and Her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38, 757-768.
- Bruhn,J.G. & B.U.Phillips(1984). Measuring Social Support : A Synthesis of Current Approach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7(2), 151-167.

- Cohen, S. & H.M.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eborahbelle (1982). Social Ties & Support in Deborahbelle (Ed.) *Lives in Stress Women & Depression*, Sage publications Inc. 133-144.
- Gore, S. (1984).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Social Supports: An Appraisal and Clarification of Research Models in Dohrenwend, B.S. & B.P. Dohrenwend (ed.) *Stressful Life Events & Contexts*, Rutgers University Press, 202-222.
- Hayes, M.P., N. Stinnett (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Husbands &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 63, 669-674.
- Heiztmann, C.A. & R.M. Kaplan (1988). Assessment of Methods for Measuring Social Support, *Health Psychology* 7(1), 75-109.
- Jayakody, R., L.M. Chatters & R.J. Taylor (1993). Family Support to Single and Married African American Mothers : The Provision of Financial, Emotional and Child Care Assistanc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5, May, 261-276.
- Leavy, R.L. (1983). Social Support & Psychological Disorder : Review.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1), 3-21.
- Lopata, H.Z. (1978). Contributions of Extended Families to the Support Systems of Metropolitan Area Widows: Limitations of the Modified Kin Network.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40, 355-364.
- McGhee, Y.L. (1985). The Effects on Sibling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47, 85-91.
- Milardo, R.M. (1989). Theoretical &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Social Networks of Spouse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1(1), 165-174.
- Orthner, D.K.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Feb, 91-102.
- Pilisuk, M., R. Boylan & C. Acredolo (1987). Social Support, Life Stress and Subsequent Medical care Utilization. *Health Psychology* 6(4), 273-288.
- Sarason, I.G. & B.R. Sarason (1986). Experimental Provid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0, 1222-1225.
- Schaefer, C., J.C. Coyne & R.S. Lazarus (1981). The Health 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4), 381-405.
- Sullivan, W.P. & J. Portner (1989). Social Support & Life Stress : A Mental Health Consumers Perspectiv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5(1), Spring, 21-32.
- Wallston, B.S., S.W. Alagna, B.M. Devellis & R.F. Devellis (1983). Social Support & Physical Health. *Health Psychology* 2(4), 367-391.